

201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정답

1	②	2	④	3	①	4	⑤	5	②
6	③	7	③	8	①	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③	17	②	18	②	19	④	20	①

해설

- [출제의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림의 강연자는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정견(正見)', (B)는 '인의(仁義)'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정의(正義)'이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용기'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이다.
-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無常(무상)] 것임을 깨닫고 고통의 원인 중 하나인 애욕(愛欲)을 버릴 것을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밀과 벤담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제시문의 '나'는 밀이고, '어느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지만, 밀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보았다.
-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가)는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통찰하고 이해할 때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아우렐리우스와 에피쿠로스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아우렐리우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신, 자연, 인간이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성의 법칙에 순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누구나 양지(良知)를 가지고 있으며,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도덕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순자와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의 값은 순자, 을은 정약용이다. 순자는 인간의 성은 악하지만 교화를 통해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이라고 보았다.

-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지식을 현실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았다. 또한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성의 변화가 진보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도덕적 인간으로 보았다.
-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의 입장에서 이와 기가 각각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기는 섞이지 않지만[不相雜(불상잡)], 떨어져 있지도 않다[不相離(불상리)]고 보았다.
-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아퀴나스,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는 모두 도덕적 삶만으로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왈처, 롤스, 노직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의 값은 왈처,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다. 롤스는 공정한 가상의 상황인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직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의하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왈처는 다원적 평등이 실현되려면 전제(專制)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장자와 맹자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장자, 을은 맹자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도덕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장자와 맹자는 모두 사람은 이상적 인간이 될 가능성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흄, 로크, 흄스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흄, 을은 로크, 병은 흄스이다. 흄스는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연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치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적 입장을 이해한다.
대화의 '을'은 공자이다. 공자는 통치자는 수양을 통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④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강조한 사상가는 묵자이다.
- [출제의도]**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스미스, 을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진 공산사회를 추구하였다.
- [출제의도]** 이항로, 최제우, 신기선의 사상적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같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 을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병은 동도서기론자인 신기선이다. 이항로는 일체의 서양 문물을 거부한 반면, 신기선은 서양의 기술을 수용해도 유교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출제의도]**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는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지배'로, (나)는 '정치의 지배'로 보는 입장이다. (가)는 참여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본다.